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8. 10. 3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전 지 훈 초빙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사회적경제연구팀
basillica@cni.re.kr

이 연구는 도내 사회적목적활동 및 사회적경제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중심의 사회적 기금 조성과 운영의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개요
2. 사회적기금과 금융의 이론 및 현황
3. 사회적금융의 운영 및 정책현황
4. 사회적금융 관련 국내외 사례
5. 충남 사회적 기금의 수요 파악
6. 충남 사회적 기금의 운영 방향과 전략

요 약

○ 충남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성장해왔지만 규모화, 고도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지원이 요청

○ 민선7기에서 충남 사회적기금 조성 공약에 따라 공공주도의 사회적기금 조성이 가시화되어 이에 대한 조성, 운영의 방향과 전략이 필요

○ 사회적 기금 운영의 개념은 사회적 금융 원리와 함께 논의되어 왔으며 사회적가치, 사회적관계, 사회적영향력의 원리를 지향함

○ 현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에서 수행중인 사회적 금융상품은 존재하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도와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충남 사회적경제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과 이를 위한 기금이 필요함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기금 수요의 조사를 기반으로 소액긴급자금 대출 및 사회목적투자와 같은 가치지향, 관계지향, 임팩트지향의 사회적 기금 운영을 제시함

○ 충남 사회적기금 운영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효과적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성과기반 운영, 사회적 투자활동 촉진, 거버넌스형 전담조직 구성의 전략 제안

○ 구체적 사업으로 긴급운전자금 융자, 충남형 사회목적투자, 사회적 신용보증제도 및 기업대상 교육, 컨설팅 등을 제시하며 핵심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중개기관)의 발굴,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0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기업 수 및 고용인원 등 규모의 성장을 지속해왔음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은 2010년 28개에서 2017년 6월 기준 760개로 24개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의한 협동조합의 증가가 양적 성장을 견인하였음
-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또한 2012년 154백만원에서 2017년 356백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성장하여 경제적 규모가 확대되었음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도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지원제도가 필요함

- 매출액, 고용규모 등 총량적 부문에서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지역별, 연령별 편차 및 임금과 처우 등의 질적 부문에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임
- 대부분 기업이 신생기업으로 초기 성장기에 집중(70%)되어 있으며 업종도 식료품 제조업 및 농업, 임업과 도소매업으로 집중되어 이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규모화 및 고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공급을 위한 사회적기금의 조성과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음

-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 투자재원과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목적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융자 및 투자와 같은 재원조달이 쉽지 않은 현실로 과거부

터 지속적으로 사회적기금의 필요성을 민간기업에서 제시해 왔음

- 충청남도는 민선7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사회적경제 기금조성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충청남도 사회적기금의 조성과 운영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연구 내용

● 사회적 기금 및 금융의 개념과 운영의 형태에 대한 문헌 검토

- 사회적 기금과 금융에 대한 정의를 비롯한 운영 원리(가치지향, 관계지향, 임팩트 지향) 검토
- 사회적 금융의 거시적 유형 검토(마이크로 파이낸스, 사회목적투자, 지역개발 금융 관계형 협동금융)와 국내의 대표적 금융지원형태(융자, 보증, 투자)의 검토

● 사회적 기금 및 금융에 대한 현재 운영의 현황

- 국내에서 현재 실시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지원 상품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올해 초(2월) 발표된 사회적 금융 정부정책의 검토

● 사회적 기금 및 금융의 국내외 사례 검토

- 사회적 기금 및 금융에 대한 국외사례의 유형별 종합적 검토와 미국(CDFI Fund)과 영국(BSC)의 사례 검토
- 국내 사례로 서울의 사회혁신투자와 사회연대은행의 사례를 비롯해 충북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사례에 대한 검토

● 사회적 기금에 대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수요 파악

- 2016년 조사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적 금융 수요의 주요 부분 검토와 함께 금융을 활용한 대표적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 실시

● 충남 사회적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방향과 전략의 제안

-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사회적기금의 효과적인 활용과 기업운영의 도움이 되기 위한 운영의 방향 제시
- 이와 함께 사회적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조직과 중앙정책과 연대 등에 대한 전략제안

02 사회적기금과 금융의 이론 및 현황

1. 사회적기금의 개념 및 원리

● 기금은 일반적 예산체계와 달리 특수목적활동을 위해 운용되는 재원

- 일반적으로 기금은 일반적인 재원에서 벗어나 특수목적활동을 위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것으로 공공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됨
- 기금이 정부의 예산과 구별되는 중요한 부분은 집행부서의 일부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며 예산과 달리 기금은 이를 운용하는 목적사업내에서 부서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적자금이라 할 수 있음(한국재정학회, 2017)
- 이러한 기금의 형태는 거시적으로 보면 우선 기능적으로 정책사업기금과 함께 후생기금(공무원연금 등), 연구기금이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의 직접 관리운영기금, 정부출연기관의 관리운용기금, 기타법인의 관리운용기금 등으로 구분

● 사회적 기금의 개념적 접근은 사회적 금융의 논의 속에서 함께 수행

- 사회적 기금은 사회적인 목적활동을 위해 활용되는 기금이며 구체적으로 포용적 성장 및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의 기능에 합목적적인 종합적인 재원을 의미함
- 사회적 금융은 공동체 및 지역사회 가치를 강조하며 시장자본주의 사회의 금융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금융을 의미하며 사회적 기금은 이러한 금융활동을 위한 특정 재원으로 인식
- 따라서 사회적 기금 관련 개념적 범위는 기금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을 포함한다고 보았을 때 사회적 금융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금융과 기금의 정의

– 사회적 금융은 통상적으로 대안금융의 형태로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함(이현주, 2017)

–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 자체가 일반 영리기업 조직과 상이한 목적, 지배, 운영상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리기업 조직 지원을 위한 기존 금융 생태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금융지원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임(장종익·박종현, 2013)

–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목적 달성의 성과로 가치가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량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 재무성과에 기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재원과 지원제도의 체계가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사회적금융은 일반 재무적 성과와 달리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기업)들에게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금융방식을 의미함(문진수, 2013; 민효상·정의룡, 2016)

- Nicholls & Pharoah(2007)는 사회적 금융에 대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나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목적조직들의 자금조달 요구에 부응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자원흐름들 또는 사회적 수익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들에 제공되는 일련의 자금 흐름들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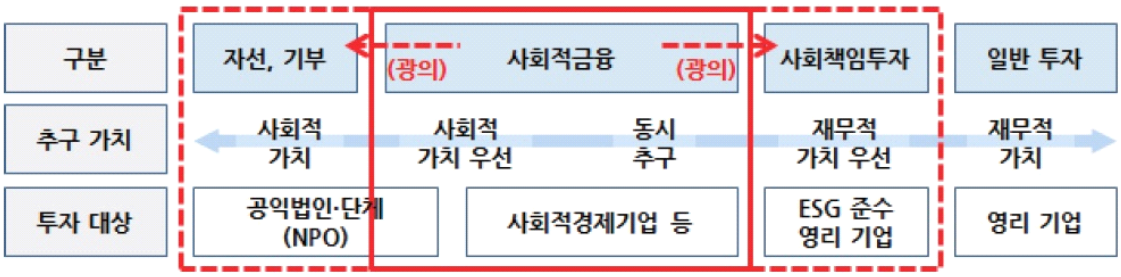
– 사회적 기금은 이처럼 사회적 금융이 운영되기 위해 조성된 재원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기업들과 같은 주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금융소외를 극복하고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금융자산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적 금융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목적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조직활동이나 공동체의 지역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소외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사회적 금융에 대한 국내 정책적 개념화

–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합동회의를 통해 2018년 2월 8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사회적 금융에 대해 거시적으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며,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 융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라 정의함

– 하지만 투자, 융자, 보증 뿐만 아니라 보조금(Grant)이나 자선행위(Philanthropy) 등으로 사회적 금융의 개념 범위를 확장하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 융자,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함



사회적 금융의 개념적 범위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 사회적 금융의 원리적 특성

- 사회적금융의 특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적 특성이 있음(서봉만 · 서휘원, 2014; 이준호, 2015).

①가치지향 금융: 기본적으로 금융이 개인과 사회의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함

②관계지향 금융: 상호협력적이고 투명한 거래의 관계맺음을 통해 이들 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관계 지향적인 금융 시스템이 특징

③임팩트지향 금융: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임팩트 투자를 지향하는 금융이며 이는 자본과 경제적 영역의 임팩트를 통해서 사회적 혁신 추구함을 특징

- 사회적금융의 가치지향에 기반하여 일반 영리금융기관과 운영방식을 비교하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여 대면접촉을 통한 관계 금융의 실천이 특징적임

영리금융과 사회적금융의 비교

구분	일반 영리금융	사회적 금융
보상	경제적 보상 〉 사회적 보상	경제적 보상〈 사회적 보상
거래매커니즘	익명성 〉대면접촉	익명성 〈 대면접촉(관계성)
배당형태	위험도에 상응하는 배당	목적에 따른 다양한 배당 형태
제공서비스	자금거래 〉자금수요자 역량강화	자금거래=자금수요자 역량강화
자본제공	금전적 자본 〉사회적 자본	금전적 자본 〈 사회적 자본
대출패턴	경기 순응적 대출(경기 변동폭 심화 유도)	경기 비순응적 대출(경기 변동폭 약화)
거래범위	특정 제약 없음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다수(특정 목적의 대출 및 투자 범위 제약)

자료: 서봉만・서휘원(2014)

2. 사회적기금 운영의 유형구분

● 사회적 금융의 활동 유형에 따른 운영 분류

– 마이크로 파이낸스

- 금융에서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방식으로 소액의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교육훈련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립과 자활을 돕는 금융기법
- 이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각 지역이나 국가의 사회적 환경과 맥락의 특성에 따라 금융수요자를 대상으로 유형이 구분되며 이는 신용협동조합, 집단연대대출, 마을은행, 마이크로은행, 연계형 모델로 유형화(박종현·장종익, 2014)

– 지역개발금융

- 지역개발금융은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배제나 경제적양극화의 문제를 지역 금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
-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지역재투자법」을 통해서 대형은행들에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투융자 등의 지역금융서비스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CDFI)를 조성하여 활성화하고 있음(문진수,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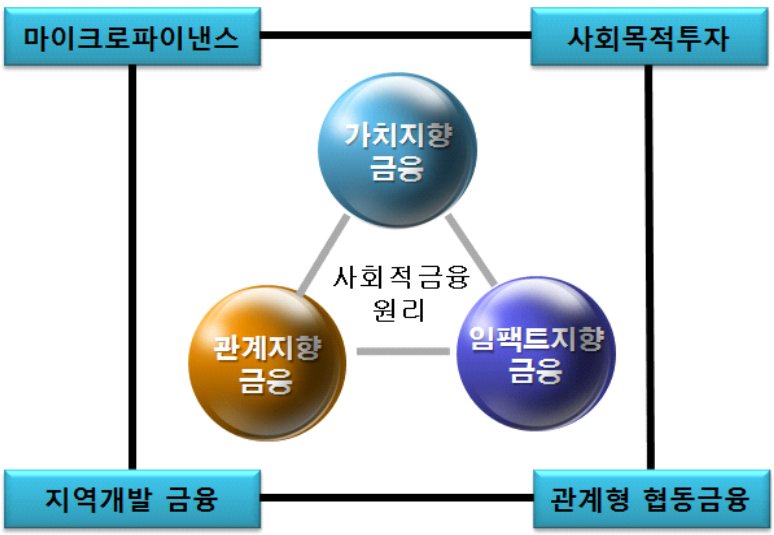
– 사회목적투자

- 사회문제의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투자유인행위를 통해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로 노인, 교육, 청소년, 범죄, 실업, 금융소외 등 긴급한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주로 활용(서봉만·서휘원, 2015)
- 대표적인 사회목적투자 수단으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를 거론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 전문 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을 의미

- 관계형 협동금융

- 사회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며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위해 십시일반 자본을 모으는 일반적 행위를 의미하며 각각 독립적 주체들이 모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협동금융을 연대금융(Solidarity Finance)으로도 규정
- 현대적 형태에서 몬드라곤 노동인민금고, 퀘벡의 데자르뎅 같은 협동조합 금융조직들이 대표적이며 구성원의 거주지역에 따른 지역기반의 관계밀착형 성향이 강함

- 이러한 사회적 금융에 관한 3가지의 운영원리와 4가지의 활동유형을 종합하면 다음 그림과 같으며 충남의 사회적 기금에 대한 운영원리와 유형도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이 가능함



사회적금융의 원리와 유형

3. 사회적 기금의 운영 형태

● 사회적 기금은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활용의 목적과 운영의 형태에 따라 분류가 가능함

● 우선 사회적 기금을 금융수단의 개념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기금은 보조금(Grant), 인내자본(Patient Capital), 대출(Loan), 위험투자(Risk Capital) 지분(Equity) 등으로 있으며 각 사회적경제조직의 업종, 성장단계, 조직형태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하나의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수단들의 배합도 가능

● 다음으로 사회적 기금을 형성 주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기금을 형성한 주체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거시적으로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의 두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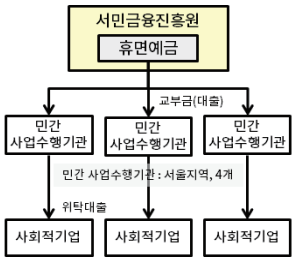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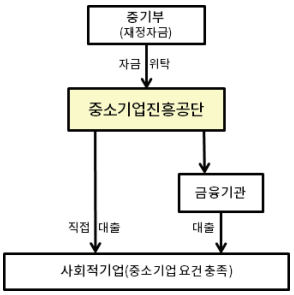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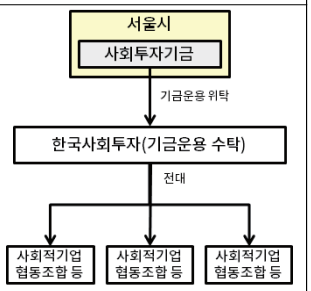
- 정책자금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조성한 사회적 기금을 의미하며 미소금융 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지원 등의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사업과 함께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 등을 의미함

- 민간자금은 비정부조직 및 민간기업의 지원자금과 기업간 상호자조형식으로 형성된 기금을 의미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소셜벤처캐피탈과 같은 벤처펀드나 사회혁신기금처럼 기업간 자조기금 성격의 자금으로 구분이 가능함(김현주, 2017)

● 이와 함께 기업대상 금융상품 개념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대상 기금의 상품도 보증, 융자, 투자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서봉만·서휘원, 2014; 기획재정부, 2018)

- 융자(대부)의 저리의 이자로 자본을 융통해주는 금융지원제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 중 일반 시중은행을 제외한 공공정책자금의 융자사업은 다음의 형태가 대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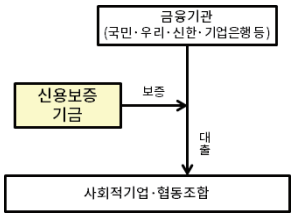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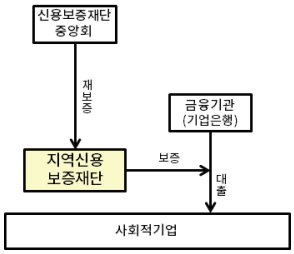
사회적금융의 융자(대부) 공공지원 형태

사업명	구 분	내 용	지원 구조
서민금융지원	주체(기금)	서민금융진흥원(휴면예금)	
	내용	사회적기업 임대차보증금, 시설 운영자금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한도(금리)	1억 (2~4.5%)	
	상환	원리금 분할상환	
	규모	2016년 9.5억원	
중소기업정책 자금	주체(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부 자금)	
	내용	중소기업(사회적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한도(금리)	45억원(정책자금기준금리 연동 3%대)	
	규모	2016년 106억원 규모	
사회투자기금	주체(기금)	한국사회투자(사회투자기금)	
	내용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사업 수행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한도(금리)	2억(2%)- 최대 5년	
	규모	2016년 기준 207억원(기금규모 703억)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기획재정부(2018), 고용노동부(2018)

- 보증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정부가 대신 신용을 보증해주는 금융행위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적금융 보증의 공공지원 형태

사업명	구 분	내 용	지원 구조
정책성 특례보증	주체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내용	사회적경제 조직 신용보증 공급	
	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한도(상환)	1억원 이내, 5년 이상	
	비율(요율)	보증비율 100%(연 0.5%)	
	규모	2016년 46억원	
사회적기업 전용 특례보증	주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및 지역기관	
	내용	사회적기업 특화된 특별보증 운용	
	대상(한도)	사회적기업(4억), 협동조합(5천만원)	
	비율(요율)	영리: 90%, 비영리: 100%(연 0.5%이내)	
	상환	5년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규모	2016년 94억원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기획재정부(2018), 고용노동부(2018)

– 투자는 벤처캐피탈 등 민간 자본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행위를 촉진하도록 정부가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가 있음

03 사회적금융의 운영 및 정책 현황

1.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 운영의 현황

●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제도는 대부분 공공이 주도

– 시중은행 및 민간기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높은 위험부담으로 현재 활발한 금융활동이 발생하지는 못함

– 공공의 사회적경제 재무적 지원은 과거 보조금 형태의 정책자금 중심에서 사회적기금을 기반으로 융자 및 신용보증, 투자 등의 사회적금융의 간접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하지만 아래 <표– >에서 처럼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의 공공의 금융지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민지원금융의 일환으로 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특성에 기반한 금융지원은 미흡

● 사회적금융의 민간부문은 기업의 사회책임투자(CSR)활동이나 투자의 형태로 사회적금융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상황

– 현재 민간부문에서 사회적기금 조성이나 금융활동의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비해 소규모의 한계

– SK 등 일부 대기업 중심의 사회적 기업의 투자 및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새로운 금융지원의 시도도 주목받고 있음

–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연합조직에 의한 자조적 공제기금이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중심의 공공과 연계한 사회목적투자도 현재 새롭게 주목받는 금융지원방식임

사회적경제기업 활용가능한 금융상품 현황

구분		주요상품	기업당 규모	내용	주체
공공	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3억원	운전자금/시설자금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4억원내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4억원내	융자금의 이자보전	대전시, 하나은행 충청신용보증기금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5,000억원 (총지원)	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업장임차금 포함)	기술보증기금
	융자	사회적기업 소액자금 대출	최대1억	소액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5,000만원	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 대출	신나는 조합
		사회적 가치기업 특별대출	5,000만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R&D투자	KDB산업은행
		사회적기업 N정책성 특례기업 우대대출	제한없음	운전자금, 시설자금	KB국민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기업은행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경영안정자금	총 100억원	운영자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투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총290억원	연구개발, 시설투자	한국벤처투자(주)
	복합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오마이컴퍼니, 비플러스)	융자, 투자	관련 기업참여통한 다양한 자금마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	융자	LG Scocial Campus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창업: 4억미만 성장: 4억이상	시설비, 사업개발비, 운영비	LG전자, 화학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장단기 자금대출	공제가입 기업 대상 신용, 담보대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혁신기금	누적금액 30억원 (서울시+민간자금)	운영자금	한국사회혁신금융
	투자 (펀드)	SK행복나눔재단 임팩트투자	기업 사회성과의 보상	사회성과기반 보상사업 투자	SK행복나눔재단
		IBK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상담후 결정	운전자금 시설지금	IBK기업은행
		임팩트 투자펀드	200억원	UN SDGs 관련 사업 운영기업 투자	크레비스 파트너스

자료: 고용노동부(2018), 기획재정부(2018)

2. 사회적금융의 정책 동향[1]

● 현재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정부정책방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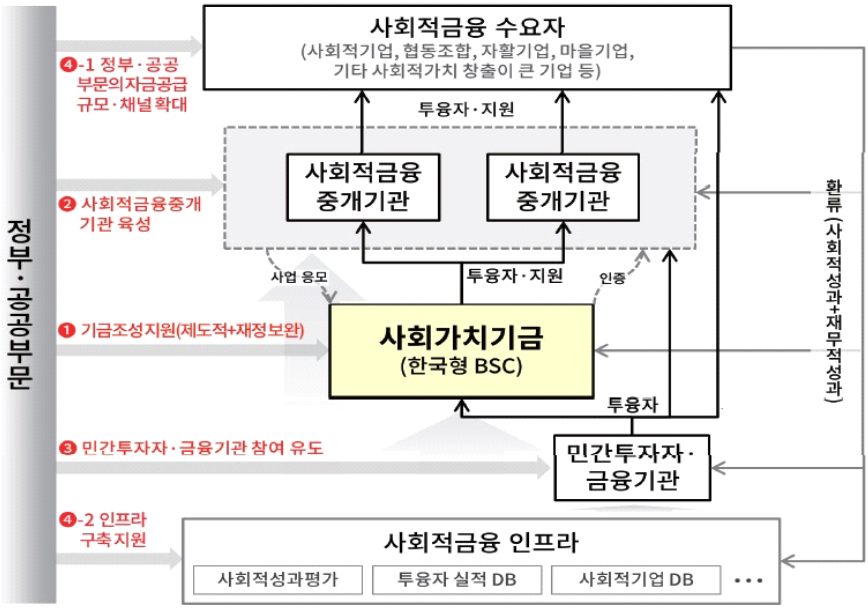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금융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의 설립 지원

– 금융 수혜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전문성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 다양한 금융기관, 민간투자자 참여유인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이러한 사회적 금융 정책방향은 다음 그림으로 요약됨



중앙정부의 사회적금융 정책 방향

● 정책방향에 따른 사회적 금융지원의 구체적 정책과제는 다음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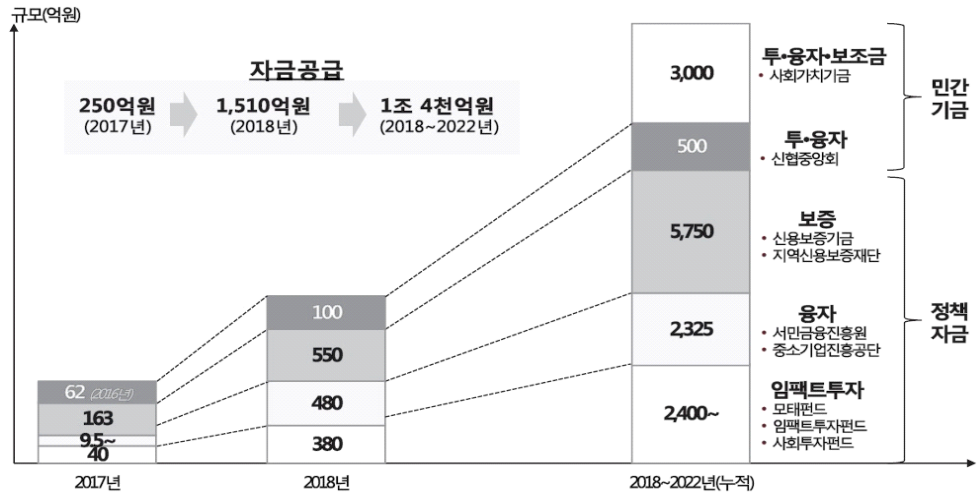
– 사회적금융의 시장과 생태계 조성

1) 다음의 내용은 2018년 2월 8일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내용을 참고함

- 사회적금융 도매기금(wholesaler)인 사회가치기금의 설립과 이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등의 제도화 추진
- 사회적금융 운영과 생태계 조성 역할 수행 위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인증제도 마련 시행
- 기업들의 및 시중은행 참여유인을 위한 세제 등 지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의 기반을 마련하여 초기단계에 정부자금 유입에서 단계별 민간자금 유입을 고려

-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 확대

- 휴면예금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기금과 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의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을 통한 투자사업 확대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유사한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의 참여확대를 위한 법인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



사회적 금융의 확대 계획

3. 현재 사회적금융의 정책적 한계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 단계

–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성장기의 발전단계에 진입한 단계이지만 자금수요에 비해 금융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과 같은 인증제도를 통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형태에 대한 한계와 보조금의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금융지원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심이 집중
- 하지만 이러한 수요에 현재 공공의 사회적 금융에 대처하기 미약한 수준이며 민간의 사회적금융은 절대적인 기금의 규모가 부족한 상황임

● 사회적경제 기업활동에 대한 공공을 비롯한 시중은행 및 민간기업의 근본적 인식변화에 따른 금융제공 방법의 변화가 필요

-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이윤창출 보다 사회적 가치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특성을 반영한 융자 및 보증, 투자의 방향 전환이 요구됨
- 하지만 자금 융자 회수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물적 담보 및 영업실적, 융자기간 등에 대한 일반 기업 수준 요구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관련 재정수요에 대한 금융적 접근은 인내자본과 같은 장기상품을 비롯한 사회적 성과나 활동 중심의 융자 시스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공 민간의 다양한 투자상품 마련 등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접근이 필요
- 특히 사회적 금융에 대해 취약계층 및 공공복지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으로 등치하거나 금융자산의 활용이 단순한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접근하는 인식은 민간영역에서 사회적금융의 접근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

● 사회적금융의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를 비롯한 시스템과 생태계 구축이 미흡

- 특히 정부 부처 개별적인 정책자금 중심으로 사회적기금 형성에 접근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사회적 금융지원을 접근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통합 및 체계화가 필요
- 영국의 Big Society Capial이나 미국의 CDFI Fund와 같은 도매기금을 중심으로 각각의 금융 유형과 목적에 부합된 사업의 맞춤형의 금융수요충족의 방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역할이 절대적임
-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적극적 육성 필요

04 사회적 금융 관련 국내외 사례

1. 사회적 금융 관련 국외 사례 검토

● 사회적 기금, 은행을 포함한 금융의 형태는 공공기금, 은행, 연대기금 등이 존재하고 있음

– 사회적 금융운영의 해외 사례는 영국의 빅소사이어티 캐피탈, 미국의 CDFI 펀드 처럼 정부에서 조성한 기금을 통한 사회적 금융을 운영하거나 협동조합 및 주식회사로 설립된 은행의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주로 수행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레가코프 등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조합 등의 연대활동을 통한 기금 마련과 운영의 활동사례나 그라민 프로젝트나 아일랜드 사례 처럼 시민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은행이 설립되거나 정부기금이 운영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금융 활동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3가지로 구분됨

-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대표되는 주민 및 기업들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소액 금융의 지원
- 환경보전, 낙후지역 활성화, 사회문제의 해결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기금을 활용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목적활동이 중심
- 노동조합 및 기업간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 및 협동과 상호부조의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 활동으로 연대기금 및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

사회적 금융 운영의 해외 현황

	명 칭	형 태	주요 사업
사회적 배제 완화	그라민 프로젝트(방글라데시)	마이크로크레딧	취약계층 빈곤 탈출
	밴시티(캐나다)	신용협동조합	금융 배제자 창업 지원
	빅소사이어티 캐피털(영국)	정부 기금	금융배제자 금융접근의 지원
	어큐먼 펀드(미국)	사회적벤처 캐피탈	취약계층 금융 접근 지원
	SOS사회혁신센터 CDI(프랑스)	사회적기업집단 내부금융	취약계층 복지와 고용 배제 완화
사회적 목적 구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아일랜드)	아일랜드 융자기금 활동	예술가 지원과 지역문화창출
	GLS 은행(독일)	협동조합 은행	환경, 생태계 보전 금융 지원
	트리오도스 은행(네덜란드)	주식회사 은행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 지원
	JAK 협동조합 은행(스웨덴)	협동조합 은행	무이자 금융환경 창출 지원
	뉴 리소스 은행(미국)	주식회사 은행	환경적 가치 창출 지원
	쇼어 은행(미국)	주식회사 은행	쇠퇴 도심지역 활성화 지원
	CDFI 펀드(미국)	정부 기금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소셜 임팩트 본드(SIB)(영국)	사회혁신 성과 채권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지원
사회적 가치 추구	방카에티카(이탈리아)	협동조합 은행	지방자치와 분권 활동 지원
	라보랄 쿠차(스페인)	기업내부 신용협동조합	기업 자금창출 및 근로자 일자리 창출 지원
	레가코프 연대기금(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대기금	조합의 노동 가치와 권리 수호
	소코덴(SOCODEN)(프랑스)	노동자 연대기금	노동 가치와 권리 수호
	상티에 신탁(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연대 신탁기금	사회적 배제 극복과 지역사회 가치 활동 지원

자료: 문진수(2013), 유병선(2014), 조혜경(2015),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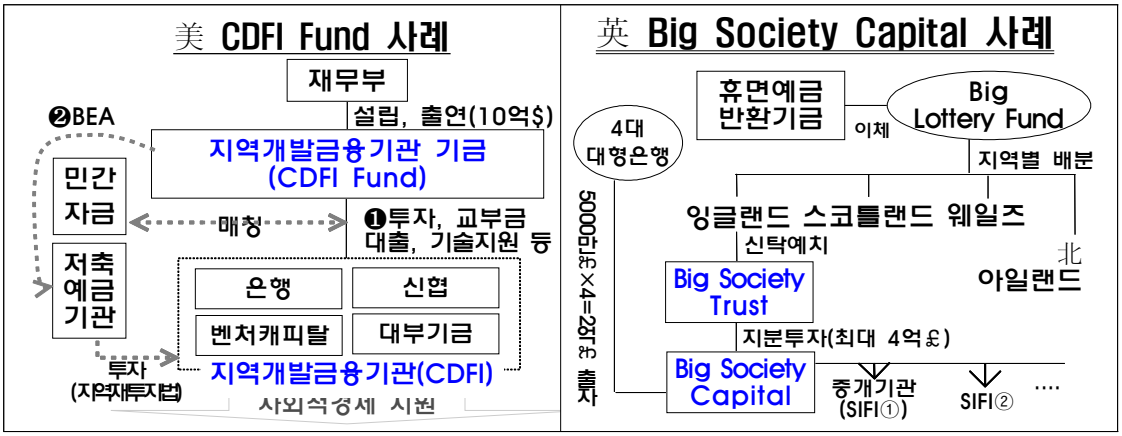
● 공공의 기금 중심의 금융활동은 미국과 영국 사례에서 발견됨

– 영국의 빅소사이어티 캐피탈(BSC)의 운영 사례

-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을 보조금 방식에서 사회적 투자로 전환하면서 시중은행의 휴면예금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회투자를 수행하는 투자전문금융중개기관(SIFI)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or)의 형태(박춘섭 · 이홍택, 2018)
- BSC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금융 전문 조직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기금들의 기금(fund of fund)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이 현장조직에 금융지원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방식의 기금임(박춘섭 · 전지훈, 2016)
- 재원은 2012년에 휴면예금 4억£와 대형은행들의 2억£ 출자로 재원을 조성하였고 민간위원 중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됨

– 미국의 CDFI 기금 활용의 사례

- 클린턴 정부가 개정한 지역 재투자법(CRA)을 기반으로 은행을 통한 기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위해 간접지원하고 있음
- CDFI Fund는 지역에서 인증받은 지역개발은행, 신용협동조합, 벤처캐피탈 등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들을 통해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체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
- 결국 CDFI Fund 운영의 핵심은 지역개발금융기관 역량강화에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CDFI를 통해 재원을 공급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영국 빅소사이어티 캐피털과 유사한 도매기금의 역할을 수행



미국, 영국의 사회적기금 조성 및 운영의 현황

● 공공기금 운영 이외에 사회적 금융은 민간 은행 중심의 운영이나 연대기금의 협동 금융의 방식이 주로 활용됨

– 스페인, 프랑스이나 퀘벡 등 사회적경제가 발달된 지역은 노동자 및 조합원, 협동조합들간 연대기금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신용협동조합 및 은행을 통해 사회적 금융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음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라보랄 쿠차(노동인민금고)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소속의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자금을 대출하며 기업간 자금 조정과 재정 운영의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들간 상호부조 형태로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노동소외 극복 및 노동권 확보를 통해 활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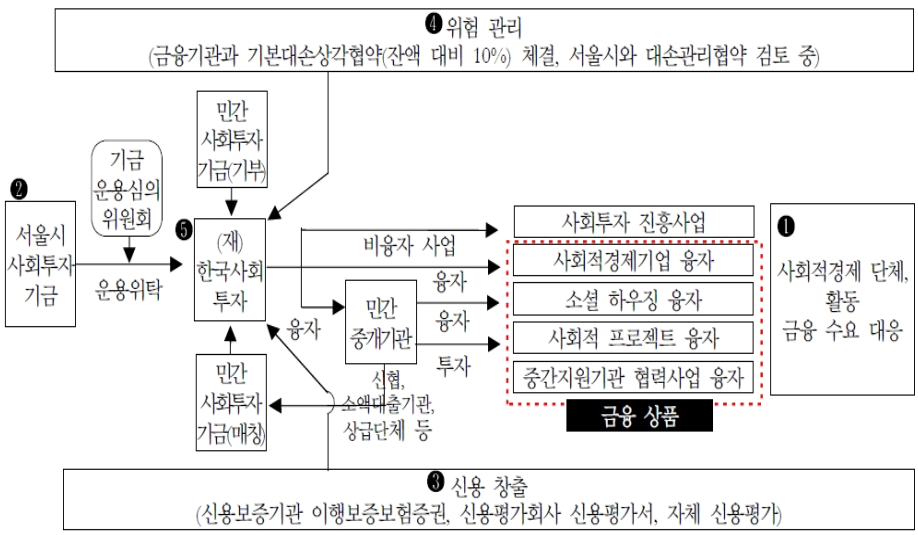
– 이외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에서 사회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금융활동들을 수행하는 사례들도 있음. 이는 취약계층의 취업이나 금융소외자의 소액대출 및 환경 등 목적활동을 위한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은행임

2. 사회적금융의 국내 운영사례 검토

● (공공기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운영 사례

– 사회투자기금의 제도와 운영

- 2012년 제정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의 조례에 기반하여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사회투자(재) 운영하였고 이후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시에서 526억원을 출연하고 사회적 금융기관등 중간지원기관 및 민간기업조성과 기부가 176억원으로 총 702억원 운용중임
- 서울시가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 지배구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운영하며 과거 한국사회투자(재)에서 위탁받아 일부 민간 중개기간들과 함께 실제 운영하는 형태[2)]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운용체계

자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2015)

2) 2017년 '자치단체 기금관리법'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 운영이 금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금 직접 운영으로 변화됨

– 사회투자기금의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며 2017년 융자규모는 80억원 수준이며 이자율 0%에 상환기간 최대 5년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사업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며 사회주택을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관련 주체들에게 융자
- 지난 3년간 70여개 기업대상으로 347억원을 융자하였으나 규모가 큰 기업대상 중심 지원으로 실제 금융도움이 절실한 영세기업들에게는 미흡한 한계
- 금융지원도 융자중심으로 진행되어 투자지원의 역할은 미흡하고 기금도 대손처리 문제로 인한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형태로 운영한 한계

● (민간기금) 충청북도 사회적기금 운영의 사례

– 기금 조성의 주체와 목적

-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순수민간기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기반조성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됨
- 2003년 사회적기업이 3,000만원 씨앗기금을 출연하면서 조성되었고 현재 10여개의 조직이 기금을 출연하는 등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

- 기금의 주요 사업

- 기부나 모금행위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금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생산설비 등의 기금배분사업이 핵심이며 이외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창업지원 등 육성사업과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및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공제조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협동경제 기반마련 지원사업을 주로 수행

– 기금의 운영 사례

- 기금 모금계획 수립과 효율적 운영관리 및 심의 배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격월로 정례화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기금출연에 참여한 모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하는 구조임
- 운영 원칙으로는 기금의 공공 영향력을 취소화하고 출연액을 불문하고 동등한 의결권 행사 등의 민주적 원칙/ 행정문서나 형식주의를 최소화하고 기금 필요성과 내용을 중시하는 실주

의 원칙/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의 원칙을 세우고 준수함

- 기금의 전체규모는 1억원도 안되는 작은 규모지만 주로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소액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 대상으로 관계금융기반의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운영체계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오히려 지역 공공자금의 유입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간 관계와 네트워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민간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부금만으로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
- 충북의 사회적기금은 사회적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에 동의하는 일반 민간기업의 참여도 수용하고 있으며 결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과 사람들의 신뢰에 근거한 지역기반 관계금융을 명확하게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운영 결과 현재는 3천 5백만원여 정도의 순자산에서 대출금 22백만원정도를 제외하고 13백만원정도 현금이 존재하는 현황이지만 충북협동조합연합회의 출연 등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융자 상환은 100%를 보이고 있음

3. 사례검토의 시사점

● 사회적금융의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를 비롯한 시스템과 생태계 구축이 미흡

–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

– 사회적금융을 활용하기 위한 공급 및 중개기관을 비롯하여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생태계 구축은 미흡

– 일방적 정부 보조금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재원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해외사례 검토결과 사회적금융을 운용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지속적인 육성에 지원

– 영국 빅소사이어티 캐피탈이나 미국CDFI Fund 사례 처럼 정부의 기금을 각 지역과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은 금융활성화에 매우 필수적임

– 해외의 경우 시중은행, 벤처캐티탈, 투자회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중개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재 육성 및 조직화의 육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시중은행들의 사회적금융 참여와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적극적 역할 부여가 필요

- 트리오도스 은행, GLS은행 처럼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은행들의 사회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사회적 기능 확장이 절실함
- 데자르뎅과 같은 사회적 금융에 적극적인 신용협동조합들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목적실현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

● 정부의 도매기금 조성과 이에 대한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활용이 적합

- 국내 사회적경제 육성의 특성상 공공재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CDFI나 빅소사이어티캐피탈 처럼 공공에 의한 도매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및 민간수요중심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을 육성 발굴이 필요

05 충남 사회적 기금의 수요 파악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회적기금 활용 수요

●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사회적 금융 관련 설문조사 실시

- 2016년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에서 사회적 금융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 수요조사 실시
- 사회적경제 기업중 정부로부터 운영비 등 직접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9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영농조합법인이 32개 협동조합도 28개가 포함이 됨
- 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98개 기업의 전체 33%가 1~5억 사이의 연평균 매출액 규모를 보이고 있고 21%가 5천만원~1억원 매출을 보이는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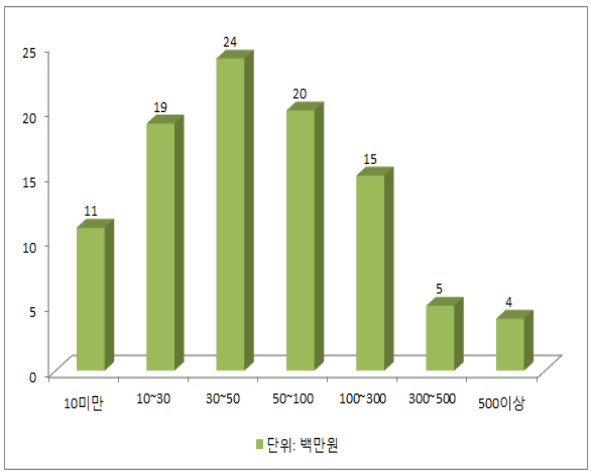
● 사회적금융 자금조달의 현황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수요의 규모는 3천~5천만원이 가장 많고 대부분 1천만원~1억원 미만의 소액자금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자금의 운영목적도 62%가 인건비 등 운영자금이고 설비자금이 30%정도임
- 이러한 자금들의 융자 상환은 대부분 1년에서 10년 미만이며 10년 이상의 장기상환의 경우는 거의 없음
- 현재 재원의 마련은 미소금융과 같은 정부 정책자금 융자(38%)가 가장 많지만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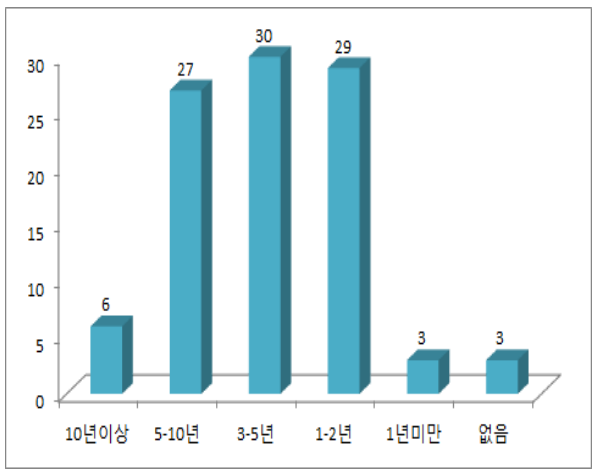
단위의 특수관계차입(31%)도 유사함. 시중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및 투자는 매우 미미한 정도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금융 필요는 단기상환의 운영자금 목적의 소액대출 형태가 가장 많으며 그러한 이유로 정부 정책자금이나 관계에 의한 대출방식이 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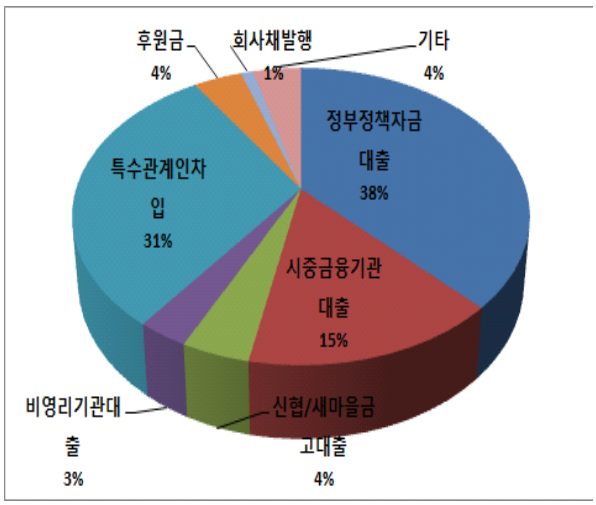
조사대상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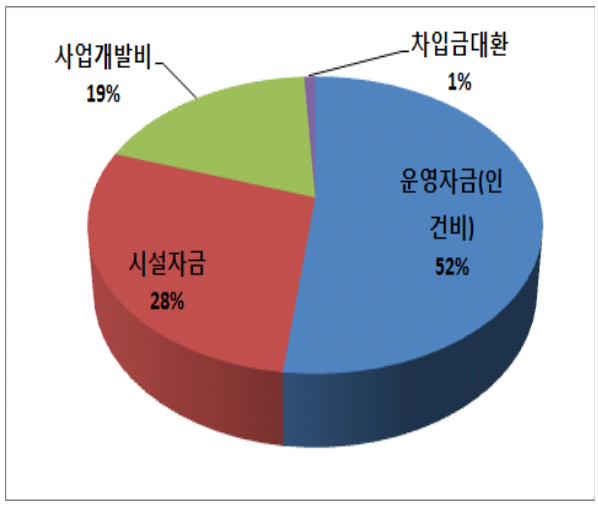
조사대상의 자금상환기간



조사대상의 자금조달 방법



조사대상의 조달자금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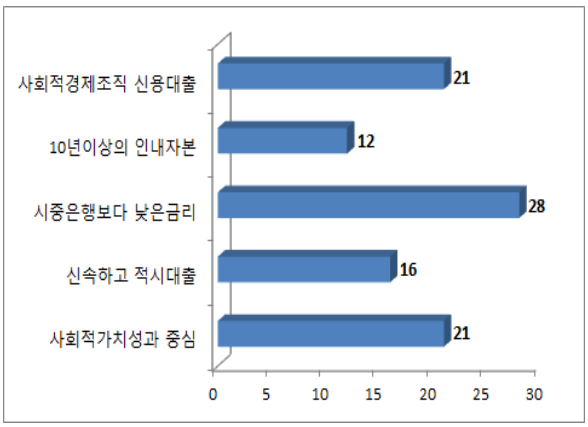


● 사회적금융의 개념과 자금조달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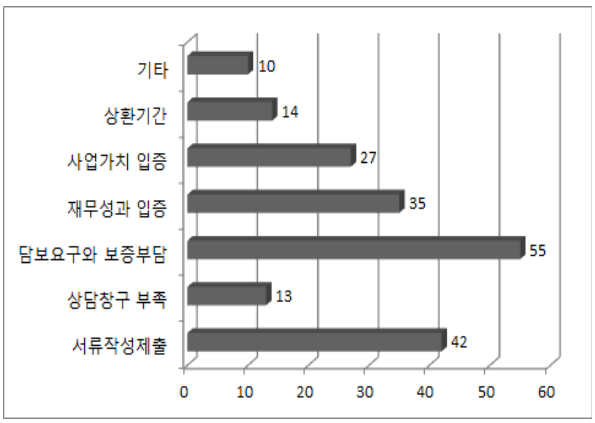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 금융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융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기금 수요의 본질적 이유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이며, 그 중에서 담보요구와 보증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서류제출과 재무성과에 대한 입증의 이유를 거론하고 있음
- 그리고 사회적 기금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운영비와 사업개발비에 대한 지원의 수요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긴급자금대출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충남에서 조성되는 사회적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수요에 부합하고 재원조달의 현재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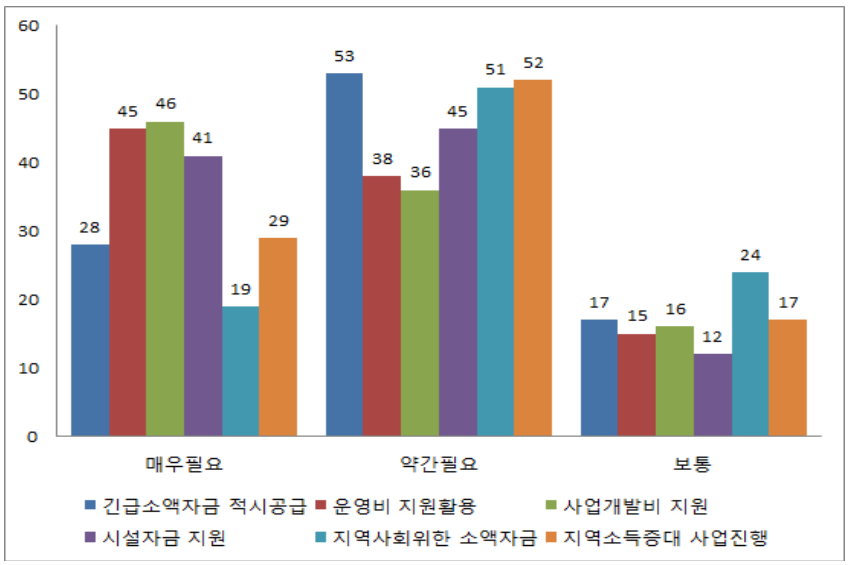
사회적금융의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사회적기금 활용에 대한 수요



2.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수요 인터뷰 조사[3)]

●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조달 현황

- 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종료 시점인 3-5년 이후이며, 이후 운영자금 및 규모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함
- 특히 이 시기의 기업들은 사업확장 위한 공간(건물) 매입을 비롯한 운전자금 외 추가적 재원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를 위해 시중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 정보를 구하게 됨
- 이때 주요한 문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은 현재도 매우 많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 구체적 정보를 얻기 쉽지 않으며 이 때문에 정책자금 중개인들이 먼저 접근하는 경우도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상 경제적 성과의 지속성 담보가 힘들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 새로운 활동에 대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많고 이를 도와주는 도전적인 모험자본이나 투자기금의 조달이 어려움

●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 수요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신용보증의 융자상품 경우 활용율이 저조한데, 상품 자체가 이자율 및 담보의 사항들이 시중금융기관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 과거부터 신뢰를 쌓아온 주거래 은행의 우대상품이 효과적임
- 정책자금이나 보조금의 경우는 재원의 사용이나 용처에 관한 통제와 관리가 심하고 자율성이 떨어지므로 이와 무관한 재원의 공급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기업도 생애주기를 비롯한 규모의 정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운영의 차이와 필요한 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맞춤형의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
- 충남에서도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금, 기술기금 등 관련된 금융제도가 많지만 대부분 매출이 떨어지면 계약연장이 힘들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기금의 활용이 필요
- 소액자금 융자 이용의 경우 긴급자금 대출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무담보

3) 본 인터뷰 조사는 9월14, 17일 이틀이 걸쳐 실시하였으며 현재 5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으면서 금융조달의 경험이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 3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및 저리에 기반한 소액자금 활용 상품들도 필요함

-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의 도전적인 추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매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목적투자행위도 필요하며 이는 어느정도 성장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 요소임

● 사회적경제 기업이 요구하는 금융 운용 방향

-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금융상품의 활용이 저조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설계로 인해 실제 사용자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크고 실제 기업의 자금 수요에 따른 기금활용의 방안들이 필요함
- 기업들의 단순한 기금 활용보다 단 1%라도 기금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기금 활용의 책임성이나 관심도 및 참여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으며 기금운영위원회 등 운영 조직차원에서도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조성된 사회적 기금을 관리하고 투융자 등의 실행주체로서 주거래 은행에 대해 지역의 신협의 참여도 필요하고 현재 하고 있지만 일반 시중은행의 참여도 기금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함
- 충남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기금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많고 조건은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을 통해 기업상황에 맞는 상품 추천과 활용을 제안해주는 매니저의 역할이 필요
- 사회적 기금의 투융자 및 활용은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활동이나 성과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을 통해 혜택의 우선순위 및 비중 등의 관리적 방향이 필요함
-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회적 실험이나 가치활동 지원을 위해 투자행위를 지원하는 모험자본(사회적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사회적기금의 필수적인 기능임
- 그리고 투융자 등 사회적 기금의 활용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 및 기관이 필요하며 기금활용의 자율성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형의 운영 형태가 바람직
- 또한 사회적 금융 상품 활용과 기금의 운영시 단순 투융자 행위와 함께 더불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들에 대한 재무컨설팅 및 회계상담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경영상 큰 효과가 있을 것임

06 충남 사회적기금의 운영 방향과 전략

1. 충청남도 사회적 기금 조성과 운영의 방향

● 충남 사회적기금 조성의 방향제시

– 충남에서 사회적기금은 충청남도의 기금출연 중심의 공적기금으로 형성될 예정[4]이며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하여 현재 운영중인 사회투자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순수 공적기금으로 조성은 공공성에 따른 경직성의 한계로 인해 활용의 절차상 민간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실한 해결에 미흡할 수 있음

– 따라서 초반에 비교적 소규모라도 민간의 기금을 함께 매칭시킬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민간 중심의 사회적기금조성은 크게 도내 민간기업의 투자 및 사회공헌자금과 충남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제연대기금으로 구성

• 민간기업의 자금은 도내 위치한 민간기업(삼성전자, 현대제철 등)의 사회공헌활동(CSR)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재원들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루트를 개발하여 기금으로 구성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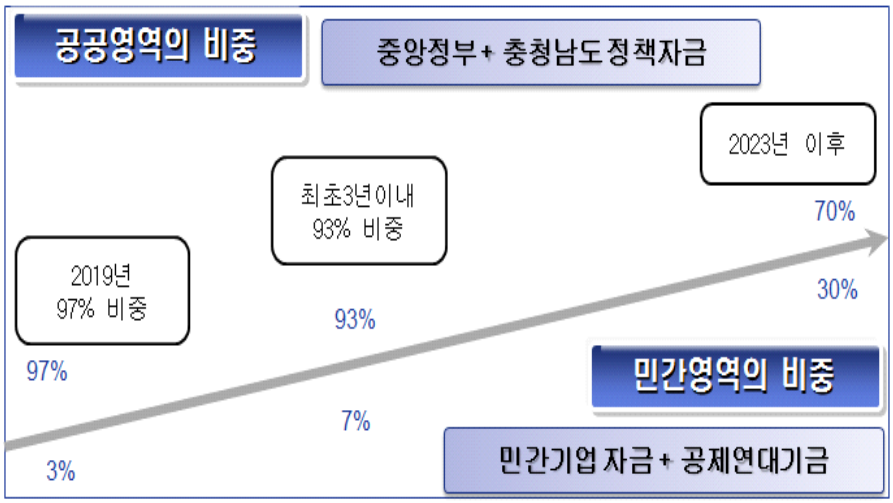
• 이러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적립되는 형태보다는 짧은 기간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활

4) 2018년 충청남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회적경제 부문의 기금조성(3-4-1)과 통합재단설립(3-4-2)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내년(2019년)부터 본격적인 충청남도 주도의 사회적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마이크로 크레딧 등의 단기 운전자금 융자와 명확한 목적의 사회투자활동 등)

-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들의 공제연대기금은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과 활용에 대해 사회적기금 전담조직에서 함께 관리하여 기금조성과 활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제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충남의 사회적 성과의 평가항목에 공제연대기금의 출연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회적기금의 창구를 병행하여 도내 사회적 가치 활동에 민간기업의 역할부여와 참여통로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기금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의 방향

● 충남 사회적기금 운영의 방향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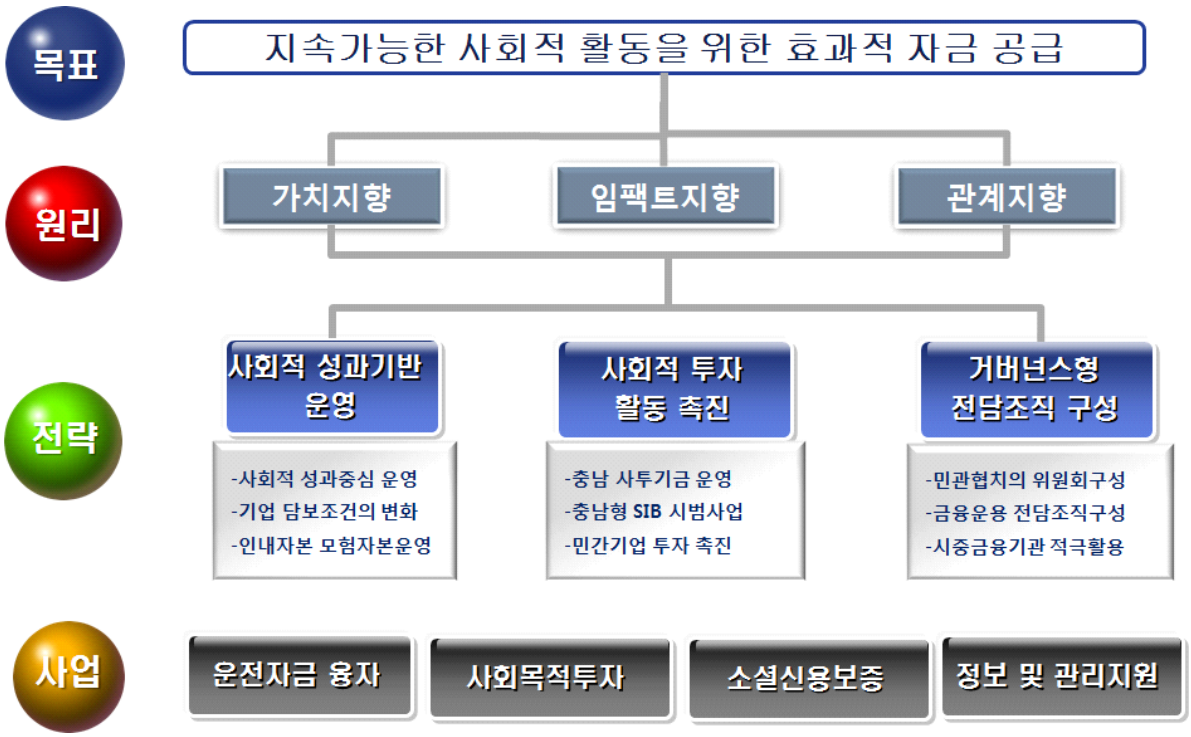
– 수요조사 및 인터뷰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에서 조성되는 사회적기금의 운영 전략과 방향에 대해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함

– 우선 충남 사회적기금의 운영 목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기금운영의 원리로는 사회적가치 지향적, 상호성 및 신뢰의 관계 지향적, 사회적 영향력 확대의 임팩트 지향적이라는 사회적 금융 원리를 활용

–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사회적기금은 다음의 운영전략을 도모할 수 있음

- 첫째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투융자 등의 기금을 활용하며 기존의 담보에 대해 사회적 성과와 활동 등의 기준을 최대한 수용하여 운영하는 전략으로 사회적 금융과 연계가 가능한 객관적 기준의 사회적 성과평가 실시가 선행되어야 함
- 둘째로, 단순한 융자 및 보증 중심의 사회적 기금운영에서 나아가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활동 촉진을 위한 기금을 활용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기금 중심의 충남사회투자기금(안) 운영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다른 민간기업들의 투자도 함께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셋째로, 충남 사회적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기금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인 민간조직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청취함이 필요하고 공공의 경직적 기금운영보다 유연한 운영 방향이 필요함

– 그리고 사회적금융의 원리와 전략에 따라 사회적 기금운영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4영역(운전자금 융자, 사회목적투자, 소셜신용보증, 정보 및 관리지원)으로 제시할 수 있음



충남 사회적기금의 운영 방향과 전략

2. 충청남도 사회적기금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 구성

● 충남 사회적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인 기금조성과 운용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제도화가 필요함

– 현재 대표적으로 서울 및 경기에서 사회적기금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운영됨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가 운영됨

– 충청남도 또한 사회적기금의 조성 및 용도의 명시, 그리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기금관련 실행을 위한 공무원의 지정 등 주요내용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 충남 사회적기금 운영을 위한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운영

– 2017년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운영이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기금의 관리운영으로 전환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남 사회적기금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의 대표적인 주체로 충청남도, ‘충남사회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영수행기관으로 설치가 필요(조례로 규정)

– 기금운용위원회는 충남 사회적기금의 거시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 조직으로 공공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형태로 구성 운영됨

- 최소한 기금운용위원회의 1/3이상 민간 금융전문가를 비롯해 이와 함께 기금과 관련 없는 분야의 충남 사회적경제 연대기구 등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며 관에서는 사회적 기금 관련 실국장이 참석하도록 구성이 필요

– 충청남도는 사회적기금의 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된 사회적기금의 결산과 성과 평가를 수행하며 충남 사회적기금의 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 수행

– 기금운영기관은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사회적기금의 운용계획이 따라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들 대상으로 투융자 사업을 수행하며 이와 함께 투융자 기업대상 기업사후관리를 비롯해 금융교육, 컨설팅 등의 비금융사업도 함께 수행

– 이러한 공공기금의 운영기관은 충남내에서 사회적 목적활동을 위한 대부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NPO등의 조직이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됨

기금운용위원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기관
-기금 사업계획 심의, 의결 -기금 운영 및 집행 평가 -투융자 규모 선정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 운용의 결산 및 성과 분석 -기금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	-기업대상 투융자 사업수행 -기업관리 및 교육, 컨설팅 -사회목적투자사업 지원

● 충남 사회적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충청남도의 전담조직 확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에 의하면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기금의 운용을 전담하는 담당자 및 조직이 요구됨

– 서울, 경기 등의 사회적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기금운용관을 비롯한 분임운용관, 출납원 등의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이 필요

– 현재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의 사회적경제팀은 국비를 비롯한 지원사업 수행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 규모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금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

● 충남 사회적기금 운영을 위한 중개기관 육성과 역할 부여

– 사회적기금에 대해 실제 사회적경제조직의 융자 및 사회목적사업 투자 행위를 실행하고 운용하기 위한 운영기관(중개기관)들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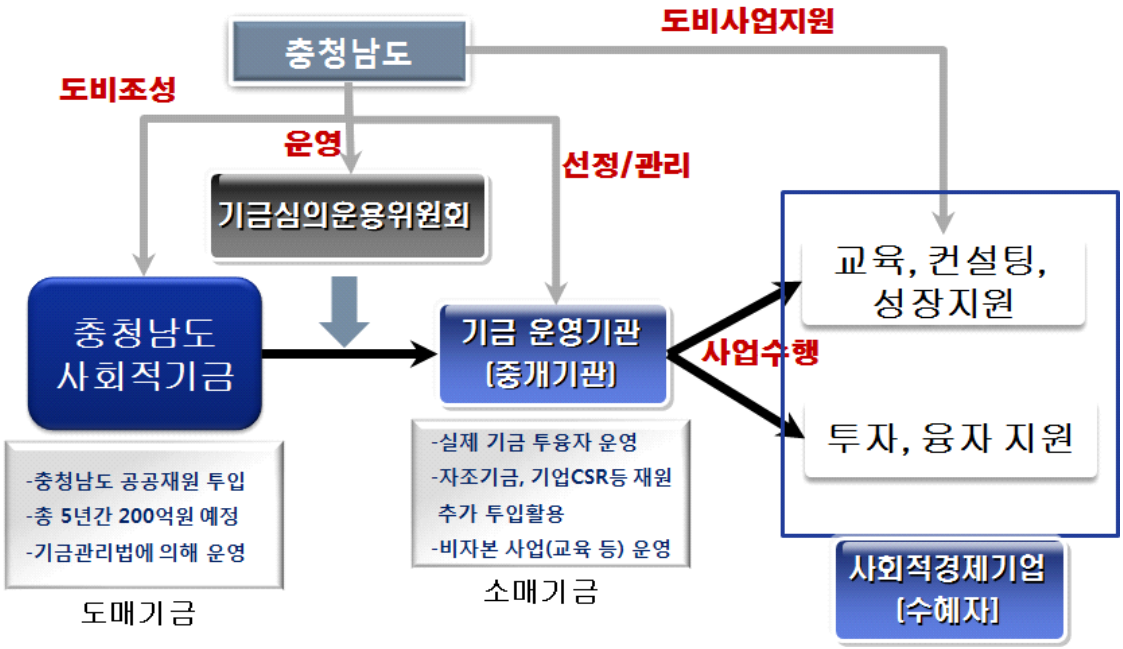
– 현재 전문적 금융행위의 지식과 활동경험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영기관들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한 과제임

– 초기단계는 충남에 소재한 지역 거점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사회적경제 유관 금융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하며 지역내 전문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

● 충남 사회적기금의 조성과 운영 시스템 구성

– 서울시 및 영국 BSC(Big Society Capital) 등 대부분 사회적 기금운영은 도매기금과 소매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현장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운영기관을 통해 소매기금을 지원받고 소매기금은 도매기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구조

– 공공재원으로 도매기금을 조성하는 충청남도의 사회적기금 형태 또한 아래 그림처럼 도매기금▶소매기금▶수혜자(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전달체계가 현실적인 형태임



충남 사회적기금 조성과 운영 시스템

– 충청남도가 도비를 기반으로 사회적기금의 도매기금을 조성하며 이는 관련 법제도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을 위한 의결기구로 '충청남도 사회적기금 심의운용위원회'를 설치하게 됨

– 그리고 실제 수요자들에게 기금 활용은 현장중심의 기금운영기관(중개기관)을 통해 시행되며 이는 도에서 직접 기금운영을 수행할 기관들을 공모절차를 통해 모집하며 운영기관들에게 배분된 소매기금은 융자 및 투자행위를 통해 기업들에게 기금이 전달

– 운영중개기관들은 도의 공공기금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CSR 자금 및 상호부조로 조성된 재원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공공기금의 대손발생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운영기관(중개기관)은 기금의 투융자 같은 기금사업과 함께 재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금융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의 비금융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기금활용을 통해 기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중개기관의 비금융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의 별도 사회적경제 정책사업비를 통해 아카데미 등의 일반 교육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으나 교육실행의 주체는 내용의 전문성으로 인해 기금 운영기관(중개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됨

3. 충청남도 사회적기금의 활용 방안

●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금의 활용 지향성

– 사회적 금융상품들이 현재도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지만 활용이 미비한 원인으로 수요조사 결과는 공급자 중심의 기금활용 설계에서 원인을 발견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운영될 사회적 기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 본 과제에서는 앞서 [그림-27]에서 사회적기금 운영의 4가지 사업에 대해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업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수요에서 중요한 영역중 하나는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긴급소액자금 융자지원사업이며 특히 저소득, 저신용의 금융 취약계층 창업 및 기존 기업들의 저금리 장기대출과 같은 재원의 융자지원이 요구됨

– 충남 사회적기금의 융자 사업의 방향은 긴급소액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방향을 제안하며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투자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일반 중앙단위의 금융의 활용을 유인하는 것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향이라 판단됨

–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의 기업 소액운영자금 융자는 물적담보 대신에 사전심사 및 현

장실사와 사회적 성과에 기반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결정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 출범을 통해 확산되었음. 주로 국내에서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의 사회조직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공공기관을 통해 실행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를 연 0~2%의 저리로 5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 상환할 수 있으며 연 2천만원 이하의 융자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사회목적활동의 투자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이 5년차 이상의 기업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어느정도 규모화를 진행한 양상으로 수요조사결과 기금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적 목적사업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 사회적 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대상 투자행위를 시행하기에는 제도상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적인 임팩트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간접적 방식이 적합함
- 투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내 사회적 목적활동의 기업 및 성과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신뢰할만한 사회적 성과평가시스템의 기반이 필요함
- 그리고 사회목적투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등의 금융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투자자들이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채권연계의 사회목적투자인 SIB(Social Impact Bond)의 충남 버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
-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남에서 사회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기관 도입도 필요함[5)]
  - 사회적 목적 투자의 지속가능하고 적극적 실행을 위해 충남 도내 사회투자 전문기관의 설립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춘섭·이홍택(2018) 자료를 참조

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민관컨소시엄(SPC)형태의 자산운용사 설립으로 다양한 사회적 투자행위를 실행이 가능함

- 단기적으로는 충남 내 거점신협을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활동을 수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남도내 사회적 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도내 운영중인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충남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투융자 중심의 사회적 은행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향후 금융 전문가 참여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신용보증 지원

– 충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신용보증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자금조달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 현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관련 기금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보증상품개발과 진입장벽을 낮추어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보증사업은 경제적 규모가 있는 기업에게는 보증상품 관련 효과적이고 적시의 정보전달이 중요하며, 경제적으로 영세한 기업대상은 지역신뢰, 관계자본 등 사회적 가본기반의 신용등급 보완 및 적용으로 보증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보증지원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회적 신용등급 산출을 통한 새로운 평가모형 개발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평가시스템 구축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제안

– 그리고 사회적 신용보증평가는 기존의 재무적 성과(성장성, 안정성)와 함께 사회적 가치와 사회신뢰 및 평판정보와 유관사업 이용실적을 함께 반영하는 신용평가 모형 구축이 필요함

● 사회적 금융의 정보지원 및 기업관리지원

– 사회적 기금의 투융자 및 보증지원 외에도 지원기업 대상의 교육, 컨설팅 및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통합적 정보지원 등의 비금융적 지원사업도 병행되어야 함

– 사회적 기금 조성과 운영이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있다면 근본적으로 투융자의 재정지원과 함께 효과적으로 재원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을 포함한 사회적 금

융 관련 연구에서도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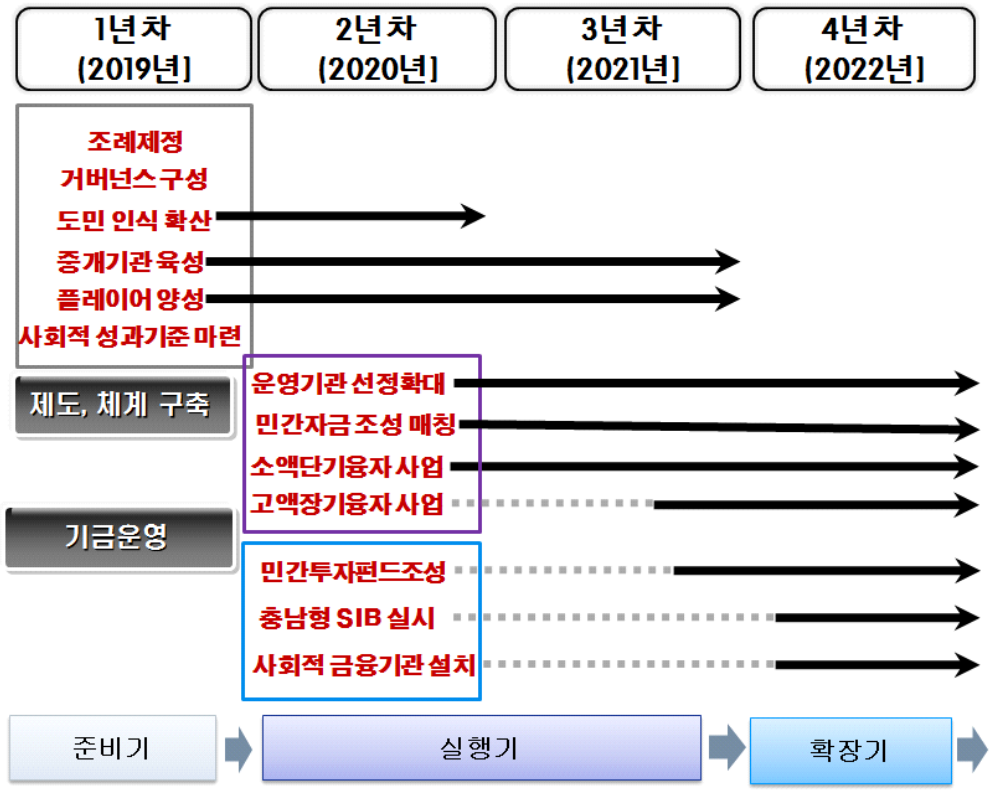
- 우선 사회적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기업에 가장 적합한 재원조성 루트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컨설팅이 필요함에 대해 실제 기업들의 많은 수요가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금융 운영기관(중개기관)에 중앙정부 및 민간, 충남도내 관련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사회적 기금의 투융자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공받은 기업에 대한 금융 관련 교육과 경영컨설팅, 재무 관리 등의 효과적 기금활용을 위한 재무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패키지 형식의 상품화가 필요함
- 또한 금융상품을 제공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함께 수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 기금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4. 충청남도 사회적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연차별 정책방안

● 사회적기금 조성·운영의 정책 접근 방향

- 공공중심의 사회적 기금 조성과 운영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수행되는 것이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2018년도에 충남 사회적기금 조성·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이 도출되면 이에 따른 조례제정, 기금운용을 위한 위원회 및 거버넌스 조직의 설치, 도내 금융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반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그리고 기금의 투융자 기준 및 보증심사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기반의 평가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성과 및 관계기반의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함
-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기금의 도매기금을 실제 운영할 기금운영기관(중개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및 금융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적자원(플레이어) 및 조직(중개기관)의 발굴 육성이 지속되어야 함
- 사회적기금 운영적 측면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시의성 있는 것으로 소액긴급자금 융자사

업을 우선 시작하고 이후 융자규모와 기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금의 인식과 저변을 확대하고 이후 사회적 목적활동의 투자활동을 운영하는 단계별 방식의 운영을 제시함



충남 사회적 금융 연차별 정책 방안 제시

● 사회적기금 운영을 위한 중개기관의 육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8) 포럼자료에 의하면 투융자를 시행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이 거의 서울에 몰려있는 상태임

– 사회적가치 및 목적활동과 금융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기금 활용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는 기금운영 초반부터 병행되어야 함

– 사회적기금 운영 초기에는 충남 내 거점신협 및 지역단위 시중은행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음

• 이에 신협중앙회(2018)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8년 4월 입법예고한 「신협법」 개정안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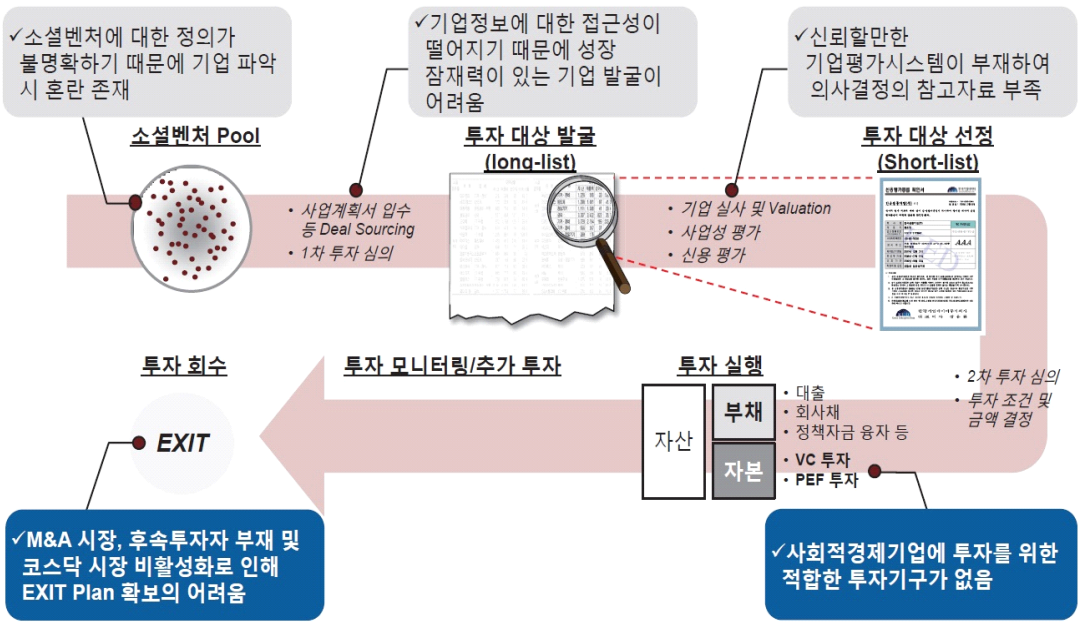
신협중앙회 사업 종류에 '사회적경제지원' 을 추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며 중앙회 내 사회적경제지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적금융 수행을 위해 거점신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에 136개, 충남에 8개 신협을 거점신협으로 지정하는 등 신협중앙회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출 필요가 있음

– 충남 내에서도 아직 미흡하지만 지역중심의 상호부조 금융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홍동마을, 천안 우리동네협동조합 등)를 발굴 · 육성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여 충남의 플레이어를 다각화 해야 함

● 사회적 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목적투자의 수행

–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필요에 의한 융자 및 보증행위는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충남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사회목적투자는 투자 재원의 조성과 투자행위를 수행하는 신뢰할만한 투자기구 및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사회목적투자 환경조성의 어려움

(이상진, 2018)

– 이상진(2018)이 제시한 사회목적투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성과평가 시스템이 제시되어야 투자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기

관과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며 투자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성 도출이 수행될 때 지속적으로 투자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

- 이러한 사회목적투자 행위는 정부의 채권발행으로 투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방식으로 현재 서울, 경기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중에 있음
  -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개선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수단 중의 하나임(노희진, 2015)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2014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해봄 프로제젝트'라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의작 있는 일반수급자의 취업을 추진하고 있음(권재열, 2016)
  -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과 학장을 위해 SIB의 다년간 사업추진을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문제와 함께 공공 예산을 사업성공을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지의 제도적인 검토는 필요함(권재열, 2016)
- 하지만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수행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관의 역량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선 충남 내 사회적 금융관련 역량있는 중개기관의 육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충남의 사회적기금 조성과 운용을 위해 충남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자산운용사 및 은행)을 설립·인수하여 사회적 기금의 투융자를 비롯한 종합적인 사회적 금융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자료

고용노동부(2018),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관계부처 합동(2018).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권재열(2016).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모델 모색. 「증권법연구」. 17(1).

기획재정부(2018). 2018 협동조합 정책활용 길라잡이(전국사업).

노희진(2015). 「사회적금융론」. 박영사.

박춘섭 · 이홍택(2018). 충청남도 사회적은행 설립방안. 충남연구원 현안연구과제 보고서.

박춘섭 · 전지훈 외(2016).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충남연구원 연구보고서.

서봉만 · 서휘원(2014). 인천시 사회적 금융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인천연구원 보고서.

안승용(2018). 사회적경제와 신협의 단계적 협력방안. 사회적금융 포럼 발표자료집.

이상진(2018). 사회적 금융의 현황 및 과제. 「제1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현주(2017). 충북지역 사회적경제기금 단일사례연구.「보건사회연구」 37(1).

장구보 · 이혜정(2015).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22.

장종익 · 박종현(2013).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한국재정학회(2017).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기금마련 및 운영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5). 경기도 사회적금융기금 도입운영방안 연구.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연구보고서.

Nicholls, A. & Pharoah, C.(2007). The Landscape of Social Finance. Skroll Centre for Social Entrepreneurship.